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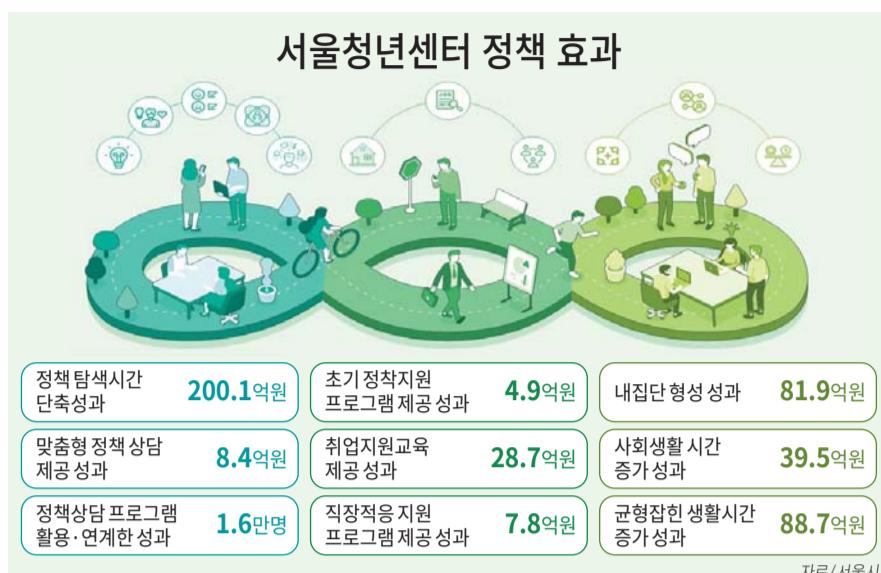
서울청년센터 정책 효과 1080억… 예산의 5배 효과 거뒀다

4년 간 이용자 10배 가까이 늘고
‘직장 적응 지원’으로 이직률↓
정책 탐색시간 단축 등 큰 성과

서울시가 청년 직장적응·정책 탐색·취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정책 효과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080억원 규모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예산(약 200억원) 대비 약 5.02배 효과다.

시는 이번 결과가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 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센터 이용자는 2021년 10만여명에서 2025년 한 해 96만5076명으로 대



폭 증가했다.

서울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의 사회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은 ‘직장 적응 지원’이 됐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돋고 이직률을 줄인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컸다. 흘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인당 월평균 약 1.48시간 줄여준 결과, 200

억 1000만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청년센터 이용으로 확보하게 된 스루탄·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 시간 증가 88억 7000만원 ▲ 청년 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 7000만원 ▲ 취업 지원 교육 제공 30억 3000만원 등 성과가 확인됐으며,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도 4억 9000만원 효과에 초기 정착 기간도 약 34%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에 비해 지역 자부심·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분석은 그간 진행해 온 설문 형태의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청년센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생활환경,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유, 심리적 요인 등 현실적 조건 등 청년 앞에 놓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사회성과 측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번 측정은 임팩트 평가 전문 연구 기관(임팩트리서치랩)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서울청년센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담당자 심층 인터뷰,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시는 이번 성과 분석에서 도출한 31개 측정 기준을 앞으로 청년센터 사업에 적용,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 청년센터에서 운영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해 성과지표를 개발하면 이를 ‘취업지원 교육 성과 지표’로 확장, 다른 센터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의사 될래”… 의대 가는 과학고·영재학생 ↑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 자료
2023년 41명서 지난해 48명
“학교 설립 취지 무색” 지적
국립의대 입학생 88% ‘N수생’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거점국립대 의대 진학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국립의대에 입학한 학생 10명 중 9명이 재수 이상(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고·영재학교가 ‘N수의 대 경로’로 굳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학교 설립 취지와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문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거점국립대 의대에 입학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은 총 205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명에서 2023년 41명으로 늘었

고, 2025년에는 48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 모집정원 확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전년도까지 모집 인원이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추세가 확인하다는 분석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과학고에서 5년간 113명이, 영재학교에서 92명이 거점국립대 의대로 진학했다. 영재학교 규모가 과학고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N수생 비중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가운데 N수로 거점국립대 의대로 진학한 학생은 2021년 23명에서 2025년 46명으로 두 배 늘었다. 과학고는 2021년 13명에서 2025년 26명으로 증가했고, 영재학교 역시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반면 당해연도 졸업생의 의대 진학은 줄어드는 흐름이다. 2022년 8명에서

2025년 2명으로 감소했으며, 과학고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당해연도 졸업생 진학이 0명이다.

N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간 87.8%로 나타났다. 국립의대로 진학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10명 중 9명은 N수생인 셈이다. 학교별로는 과학고가 96.47%, 영재학교가 77.17%다.

연도별로도 N수 비중은 높아졌다. 2021년 79.31%에서 2025년 95.83%로 뛰었고, 과학고는 최근 3년간 100% N수생이었다. 영재학교는 2025년 들어 N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마치고 의대로 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N수생의 인원과 비중이 증가세”라며 “거점국립대만 파악했을 때 이 정도인데, 29개 사립의대까지 포함하면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문제풀이 수업 그만… 탐구중심 학습으로

서울시교육청, K-STEM 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되던 수학·과학 수업을 학생 질문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탐구·협력학습’과 ‘질문이 있는 STEM 교실’을 확산해 수학·과학을 실제 문제 해결의 도구로 경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를 맞아 서울 학생의 수학·과학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 통합 브랜드’ K-STEM 실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수학교육·과학·융합교육 정책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STEM, 모두를 위한 STEM’을 비전으로 내걸고, 모든 학생이 데이터 기반 탐구 역량과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판교대장도서관’ 명칭 확정

오는 7월 개관 목표

성남시는 오는 7월 개관을 목표로 분당 판교 대장지구에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판교대장도서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은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결정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판교대장지구 인근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4개의 도서관 명칭 후보안을 놓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총 771명이 참여한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77명이 ‘판교대장도서관’을 선택했다.

판교대장도서관은 2020년 4월부터 총사업비 289억 원(국·도비 56억 원 포함)을 투입해 대장동 187-4번지 일원(대장초교 인근) 시유지 1,863㎡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연면적 5,151㎡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시는 이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독서·문화·학습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가족 열람실, 종합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다양한 독서·지식정보 제공 공간과 함께 생활문화센터도 설치한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올해 초등 1학년 30만명도 안 된다… 초중고 전체는 500만명 봉괴
▲ “이 대통령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 원 구형

▲ 경북 영천영대병원 영안실 시신 무단 반출, 유족 반발 ‘물의’
▲ “출소하면 죽인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메트로 한줄뉴스

▲ 7호선 청라연장선, 내년 일부 개통… 스타필드 청라도 준공
▲ 소아심장외과 의사 27명 뿐… 어린이 절반 이상이 ‘원정 수술’